

2. 수선결사(修禪結社)의 성립

1) 수선사의 결사

12세기 후반의 신앙결사는 불교계에 대한 개혁운동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것은 개경 중심 불교계의 타락상과 모순에 대한 비판운동으로서, 지방불교적인 새로운 경향을 지녔다. 지눌은 1182년(명종 12) 정월에 개경의 보제사에서 개최한 담선법회(談禪法會)에 참석하여 승과에 합격하였다.¹⁾ 그때 동학 10여 명과 명리를 버리고 산림에 은거하여 결사를 맺고자 다음과 같이 약속한 것이 수선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제공(諸公)이 내 말을 듣고 모두 그렇다 하여 말하기를, “다음날 이 언약을 능히 이루어 숲 아래에 은거하여 동사(同社)를 결성하게 된다면, 의당히 그 이름을 정혜(定慧)라 부르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맹세하는 글을 지어 결의하였다.²⁾

그러나 보제사의 결의는 지켜지지 않은 채 선불장(選佛場)의 동학들은 뿔뿔이 흩어져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188년 봄에 선불장 동학 중의 한 사람인 촌공(村公) 선백(禪伯)이 거조사(居祖寺)에 주석(住錫)하면서, 하가산(下柯山) 보문사(普門寺)에 머물고 있던 지눌에게 글을 보내어 정혜사를 결성하고자 권고하였다. 그해 봄에 지눌은 동행하겠다고 하는 선자(禪者)와 함께 거조사로 옮기고는, 옛 서원(誓願)을 같이하던 사람들을 불러모아 법회를 열었다. 1190년에 지눌은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을 반포함으로써 정혜사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³⁾

거조사는 너무 좁아 여러 사람을 수용하기 어렵게 되자, 지눌은 문제(門弟)인 수우에게 강남의 여러 곳을 두루 살펴 안선(安禪)할 곳을 찾게 하였다. 수우가 마침 송광산(松廣山)에서 한 폐사를 찾아내니 그것이 곧 길상사(吉祥寺)였다. 지눌은 1200년(신종 3년)에 정혜사를 송광산의 길상사로 옮겼다. 본래 길상사는 신라 말경에 혜린(慧麟)대사가 창건하였으며, 고려 인종조에 석조(釋照)대사가 중창하였다. ‘길상’은 문수사리(文殊師利)의 역어(譯語)이기 때문에 아마 길상사는 화엄종에 속한 사찰이었을 것이며, 혜린이나 석조도 화엄종 승려였을 것이다.

지눌은 승선(僧選)에 합격한 후 전남 나주에서 혜능의 육조단경(六祖壇經)을 익혔고, 1185년 하가산의 보문사에 우거하여서는 이통현(李通玄) 장자(長者)의 화엄론을 접했다. 정혜

1) 金君綏, 『曹溪山修禪社 佛日普照國師碑』, 『朝鮮金石總覽』下, 1919.

2) 知訥, 『勸修定慧結社文』(『高麗普照國師法語』)에 “諸公聞語 咸以爲然曰 他日 能成此約 隱居林下 結爲同社 則宜以定慧名之 因成盟文 而結意焉”이라 하였다.

3) 지눌, 『원수정혜결사문』에는 이때에 거조사에서 정혜사를 결성하고는 그社規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禪宗·敎宗·儒敎·道敎에 몸담았거나 세상을 싫어하는 高人으로서 俗世를 벗어나 마음을 닦는 道를 오로지 하고자 한다. 이 뜻에 부합한 자는 비록 지난날 서로 모였던 因緣이 없었다 하더라도 結社에 그 이름을 넣게끔 허락한다. 둘째, 비록 한 자리에 모여 공부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생각을 모두어 마음 비추어보기를 힘쓰면서 바른 因緣을 같이 닦기를 권고한다.

사를 이전하는 곳으로 길상사가 택해진 이유는 바로 이러한 화엄사상과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지눌은 선 수행을 강조하지만 화엄교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길상사로 옮기고 난 뒤의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이 유념된다.

승안(承安) 5년(1200) 경신(庚申)에 이르러 공산에서 결사를 강남의 조계산으로 옮겼다. 그런데 이곳의 이웃에 정혜사가 있어 명칭이 서로 혼동되기 때문에, 조지(朝旨)를 받들어 정혜사를 고쳐 수선사라 했다. 그러나 권수문(勸修文)은 이미 유포되었기 때문에 옛 이름대로 조판 인쇄하여 널리 반포한다.⁴⁾

지눌이 송광산으로 정혜사를 옮겨와 결성하였는데, 그 이웃에 또 다른 정혜사가 있었다. 아마 지눌이 정혜사를 옮겨오기 이전부터 길상사의 이웃에 있었던 정혜사는 예종대에 활약한 혜소(慧炤)국사가 창건한 절임이 분명한데,⁵⁾ 뒤에 조계종 승려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수선사의 제6세 충지(冲止) 때에 이르러 조계종의 법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⁶⁾ 정혜사가 뒷날 조계종의 법맥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당시 지눌의 정혜사와는 다른 절이었다. 그래서 지눌은 정혜사를 수선사로 고쳤다. 1205년(희종 1)에 정혜사는 왕명에 따라 수선사로 개칭되었는데, 이때 수선사의 중창에 최우(崔瑀)가 깊이 관여하였다.⁷⁾ 말하자면 수선사는 지눌 당시에 최씨 정권과 결합하여 중창되었다.

4) 지눌, 『뉘수정혜결사문』 末尾에, “至承安五年庚申 自公山移社於江南曹溪山 以隣有定慧寺 名稱混同 故受朝旨 改定慧社 爲修禪社 然勸修文 既流布故 仍其舊名 彫版印施耳”라 하였다.

5) 김두진, 「고려시대 사상의 역사적 특징」, 『현통과 사상』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66쪽.

6) 冲止, 『慧炤國師祭文』(『圓鑑國師集』 文篇, 亞細亞文化社刊, 165~166쪽)에 “維年月日 鷄足山定慧社沙門 謹以香茶 庶羞之尊敬 祭于當山 開闢始祖 慧炤國師之靈”이라 하였다.

7) 許興植, 「修禪社 重創記의 史料 價値」, 『韓國中世佛敎史研究』, 一潮閣, 1994, 296~297쪽.